

※ 입 레	Introit	44장 1절		인 도 자
※ 초청과기원	Call to Worship			인 도 자
※ 신 앙 고 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다 같 이
※ 찬양과경배	Praise and Worship	9장		다 같 이
교 독	Psalms Reading	50번		다 같 이
고백의기도	Confession of Sins			다 같 이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속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저희입니다. 세상의 인정만을 갈구하며, 조건 있는 사랑에 스스로 묶입니다. 자기 사랑에 몰두하며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펴지 않습니다. 매일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게을리하고 사람들의 인정 받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 시옵소서. 세속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 참된 만족과 위로 를 얻게 하소서.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저희의 존재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의선언	Assurance of Pardon		인 도 자
찬 양	Hymn of Praise	456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최근철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al Reading	에스라 9:5-9 / 로마서 7:19-25 1부: 신송춘 / 김서기 2부: 김상일 / 박응규	 말 은 이
찬 양	Anthem		1 부 찬양대 2 부 찬양대

설 교	Sermon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경준 목사
찬 양	Hymn of Response	440장		다 같 이
예 물 봉 헌	Offertory Prayer	211장 1절		이경준 목사
광 고	Announcement			이경준 목사
※ 파송의찬양	Song of Sending	평화의 기도		다 같 이
※ 축 도	Benediction			이경준 목사

☞ ※가 있는 순서는 일어서서 참여합니다.

☞ 다음 주 기도: 최경민 장로

우리는 에스라서 강해를 통해 포로기 이후 멸망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분투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9장은 "이런 일들을 마친 다음에"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이란 지난주 나누었 듯 에스라가 5,000명의 무리와 함께 1,500km에 달하는 거대한 위험과 난관을 뚫고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버거운 삶의 과제를 잘 마무리했다고 해서 시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지도자들은 그곳 공동체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심각한 고질적인 영적 장애물을 고백합니다. 백성들부터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르기까지, 이방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 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방 통혼을 경고하고 금지한 진짜 이유는 단순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 차원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되는 신앙적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한 이유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삶의 실체는 바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기본적 욕구를 가꾸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타인과 이웃, 자연,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감정'에 매몰된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만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에만 온통 매몰되어 하나님과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의 또 다른 문제는 세상의 부정적인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고 '섞여 버리는' 신앙적 위기입니다. 세속 가치관 중 우리 영혼을 가장 피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루고 보여주어야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세상의 강박과 소리에 길들여지면, 진짜 영혼의 만족을 잊은 채 세상의 평가에 갈급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지독한 자기 사랑과 세속의 조건적 가치관에 묶인 억겨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자기 사랑과 세속적 집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옷을 찢고 무릎을 꿇어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간질병 아들을 둔 아버지 역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울부짚었습니다. **"내게는 스스로 벗어날 힘도, 참된 믿음도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자복의 기도야말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젖히는 출발점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중심의 갇힌 삶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참되고 복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십 일 조 강형희 고남주 권희정 김명신 김민정A 김서기 김성준 김영선J 김윤희 김은주 김인수 김정애 김효정B 남윤희 노경미 박경희 박수자 박재하 서동원 송상훈 송순금 신미옥 안미정 안병용 안성현 안효초 양선숙 양혜라 유양호 윤경화 이건웅 이경임 이희림 임남이 최근철 최선아 최지혜A 하봉희 한 선 한혜진

일 캄 반 사 구회언 권혜자 김명신 김영례 김영호 김용욱 김정아 박범성 박영혜 서재석 송선용 신은순 안송엽 양광희 양혜라 이병호 정재종 조문철 조용준 한 승 무 명3

건 축 김인수

생 감 일 사 김기면 박범성 서덕렬 안태경 이해련 허혜은

지 선 역 교 강오순 권희정 김구태 김명신 김서기 김유례 김정자 박수자 박윤미 송상훈 이감철 이대훈

농 선 촌 교 권희정 김명신 김서기 김정자 송상훈 송순금 전순례 한혜진

해 선 외 교 권희정 김명신 김서기 서동원 송상훈 신미옥 전순례 한선

암 선 교 권희정 김구태 김명신 김서기 김정자 김현석 박윤미 송상훈 신미옥 이순이 임남이 전순례 최점숙

장 선 학 교 강오순 권희정 김구태 김서기 김정자 서동원 송상훈 양선숙 임남이 전순례 정미영

재 복 가 지 구자현 권희정 김구태 김서기 박윤미 박형수 송상훈 임남이

2026년 10월 목회 일정		2026년 전도현황	
4	성령강림절 후 열아홉째 주일, 성찬식, 정기당회	1	정영임 안나영 김상일 윤복순 김정은 홍용표 신순금 강종태 성기봉
11	성령강림절 후 스무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2	김인수
18	성령강림절 후 스물한째 주일, 정책당회		
25	성령강림절 후 스물둘째 주일, 종교개혁주일, 구역별 야외예배		

